

박홍근 “눈 떠보니 후진국...尹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교섭단체 연설에서 발언...“참사 이어져”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9개월 총평하면서 “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는 후진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경제 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

정·물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며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고물가와 고금리,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 원금’이라고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다.

북한 무인기 침투, ‘아랍에미리트(UAE)의 적’ 발언, 일본 강제징용 배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이라며 “그런데 정작 윤 대통령은 적반하장,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 보니 가뜰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연일 한국 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 입법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코로나 특수를 누리던 소수 재벌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황재세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해 수많

은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듯이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가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안과 관련해서는 “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 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가 내놓은 표준준입제와 지입 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해당사자가 모여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탈탄소’ 생태 문명을 이끌기 위해서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유럽연합(EU)은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EU 역내에서 태양광, 풍력, 청정수소 등을 생산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럽판 IRA’를 선언한 것”이라며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수출 피해에 더해 이제 유럽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밝혔듯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녹색산업 육성지원법, 즉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수출 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탈탄소 녹색 산업을 집중·육성하겠다”고 주장했다.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든다”며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도입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다.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전했다.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해서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대북강경론을 강조할수록 주식시장만 출렁이고 유망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며 “경제는 악화되고 국민 불안만 커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이슬기자

한숙경 전남도의원, 전남테크노파크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박차’ 주장



한숙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전남테크노파크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초광역(전남 여수, 울산) 화이트바이오 산업분석 및 기초기획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 클러스터 구축과 특구 지정 추진까지 가속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식물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미생물, 효소 등을 활용하여 기존 화학산업의 소재를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하는 산업이다.

여기에 최근 석유 기반 제품의 유해성, 세계적인 플라스틱 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강원연구원에서 올해 6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나아가 투자 선도지구 지정 및 세제 특례 필요성 제기 등이 담긴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한 의원은 “화이트바이오 산업이야말로 전남도의 풍부한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산업이다.”고 말했다.

특히 “전남도는 강원도에 비해 비닐하우스에 사용되는 영농폐비닐 발생량이 2배에 달하지만,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강원도와 비교하면 안타깝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육성·추진하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민주-정의, 대장동 특검 ‘공감’...김건희 특검 ‘긴밀 협의’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에 공감하고 있는 반면 김건희 특검엔 부정적인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과 김건희 특검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이 돼야 한다는 취지 논의들이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수사가 미진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났고 50억 클럽 수사와 대장동 돈 흐름을 제대로 따져야 한단 취지 논의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더해 “50억 클럽 관련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당도 추진하고 있고 정의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우리 원내대표와 정의당 간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공개 최고위서 특검 관련 논의

그는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구속영장 청구 관련 보도가 있는데, 이 대표는 그간 많은 소환 수사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소명된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당 대표로서 조사에 이제까지 임해왔고 특별히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영장 청구 관련 언급이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그런 영장 청구는 말도 안 되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부당한 청구에 대해선 당이 단합해 대응해야 한단 말도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15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사안에 대한 공세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안 수석대변인은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최근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 광 직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관련 검찰 수사 대응 등에 대한 집중적 문제제기와 따지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재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